

# 2002년도 전국초등학생대

## 저학년부 대상

나는 담배 냄새가 너무 싫다. 담배 냄새를 맡으면 역겨운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담배를 한 갑 정도 피우셨는데, 이제는 끊으셨다. 이런 대단한 우리 아버지를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전에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실 때는 우리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니까 베란다에 쫓겨나다 시피 하면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셔야 했다.

"아빠, 나가기 싫으시면 담배를 끊으세요."라고 얘기 한 적이 많이 있다. 그래도 "이건 아빠 과자야."라고 하시며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2002년이 되면서 무언가 결심을 단단히 하신 것 같았다.

1월 1일부터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믿기가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결심을 믿어 보기로 했다. 언니는 작심삼일이 아니길 바랬고, 나는 아버지께 제발 영원히 피우지 마시라고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담배를 끊으시면 원하는 걸 다 해드린다고 약속 드렸다.


이런 응원 속에서 3일이 지났다. 아버지께서는 "아휴, 미치겠네. 입에서 냄새가 나겠네."라고 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참기 힘들면 금연침도 있다는데, 그걸 맛보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대단한 우리 아버지는 월 그까짓 것 가지고 침까지 맞느냐며 오히려 회를 냈다. 그러면서 자꾸 날짜가 흘러갔다.

어머니께서는 담배를 잊게 하기 위해서 과자, 사탕, 과일 등을 열심히 아빠 앞에 사다 날랐지만 과일을 조금 드시고는 사탕과 과자는 안드시면서 담배를 끊으셨다. 정말 대단한 우리 아버지였다. 다른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가 힘들어서 웬만한 사람은 못 끊는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신다고 담배를 한 대도 안 피우신다. 어머니께서는 "혹시 화가 나 회사 가서 피우시는 거 아니죠?"라고 물어보시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럴 것 같으면 끊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셨다. 냄새 지독한 담배를 끊으셨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어떤 아저씨들은 못 끊어서 병원에도 가고, 금연침도 맞아서 겨우 끊었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참으면서 끊으셨다.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신 것이다.

이런 아버지가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다른 아저씨들도 우리 아버지를 본 받으라고 얘기 해 주고 싶다. 담배를 끊으셨으니 우리 아버지는 앞으로 더 건강해 지실 것이고 우리 집에도 그 역겨운 냄새를 안 맡아도 되니까 우리 가족도 더 건강해 질 거라고 믿는다.

모든 아저씨들이 담배를 끊어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조선아  
서울 수송초등학교 3~8



# 엿글짓기 대상 수상작품

고학년부 대상

2002년 새해에 금연열풍이 일어났다. 담배 애연가인 우리 아버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빠, 담배 끊으세요. 폐암이 아빠보고 친구하자면 할꺼예요?” 누나는 애교를 부리며 말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완전히 혐박이었다.

“아빠, 저도 담배 피울 거예요.”

“어이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담배 피우면 보기 좋겠네.” 어머니는 내 말에 기가 막힌 듯 투덜거렸다.

“알았어. 이제 끊을테니 그만해!” 아버지는 마음이 상하셨는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 나가버렸다.

“엄마,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냐?”

“아냐, 이번 기회에 끊게 해야 돼.” 어머니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굳은 표정이었다.

“엄마, 무조건 끊으라고 하면 아빠가 더 피울려고 할지 모르니 방법을 바꾸어요.”

“어떻게?” 누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준모하고 나하고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자료를 찾아 스크랩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금연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거 좋은데.” 누나다운 현명한 방법에 우리는 모두 찬성을 하였다.

나는 흡연이 실려있는 신문을 뒤졌고 누나는 인터넷에서 담배에 대한 자료를 찾아냈다. 파일에 뽑은 자료와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는데 이들이 걸렸다.

우리는 드디어 작전을 개시하였고 아버지의 수첩에다 파일을 갖다 두었다. 파일 앞에는 금연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잠시 후 외출에서 돌아오신 아버지는 파일을 읽어 보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었다. 그리고 난 후 서랍에 넣어둔 담배를 꺼내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다.

“누나, 성공이야!”

“엄마, 아빠 간식거리 만들려면 바쁘겠네.”

“아야, 그게 문제냐. 아빠가 건강만 해진다면 뭐든 못할까.”


우리는 약간 열린 틈으로 아버지의 결심을 보고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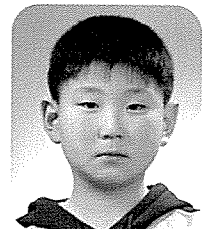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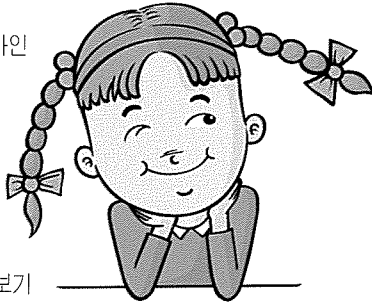
아버지는 그후로 금연을 실천하였고 누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비법을 물어 박하사탕을 사다 날랐고 어머니는 과일을 갈아 틈만 나면 아버지께 드렸다.

어느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혔다.

“준모야, 호기심으로라도 난 담배 피우지 마라. 돈 버리고 몸도 버리고 고통까지 안겨주는 거 너 알지?”

“아빠, 걱정마세요. 담배가 독약이라는 거 저 잘 알아요.” 나는 큰소리를 탕탕 쳤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완전히 담배의 마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의 담배에 대한 두려움도 하늘 저 멀리 깨끗이 사라졌다. 



김 준 모  
대구 대봉초등학교 6-3